

군위 인각사

고려시대 쌍연지·목탑 심초석 발굴



인각사지유적발굴조사 지도위원들이 3월 8일 고려시대 건물과 연못터를 둘러보고 있다.

일연선사 주석시 가람배치 파악 기대 회랑안 사각형 연지 백제서 온 것 입증

군위 인각사지 종합정비를 위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2기의 연못, 고려시대 대형 목탑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심초석(목탑을 지탱해주는 중앙기둥의 주춧돌, 사리구를 넣어두는 곳)이 발견됐다.

조계종문화유산 발굴조사단(단장 탁연, 이하 발굴조사단)은 3월 8일 경북 군위군 인각사 발굴 현장에서 개최한 제1차 군위 인각사지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을 비롯해 군위군관계자, 발굴조사단, 김동현(문화재위원,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정재훈(문

화재위원, 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장), 조유진(토지박물관장), 문명대(중국대 교수), 이강근(경주대 교수) 등 지도위원과 조사위원들이 참석해 발굴과정과 현장 상황 및 발굴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인각사지유적발굴조사는 일연선사 주석 당시 가장 번창했던 가람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극락전과 강설루의 해체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위군의 의뢰에 의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됐다. 발굴 지역은 극락전과 강설루가 있던 부지 40×43m의 작은 구간이다. 인각사지유적발굴조사는 1991년부터 이미 경북대학교 박물관과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발굴조사단 등에 의해 수차례 이뤄졌지만 고려시대 건물지와 쌍연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발굴조사단은 일연선사 재세시의 가람배치와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극락전 부지에서 확인된 심초석은 대형 목탑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신라까지 거슬러 올라가 또 다른 대형 목탑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또, 2곳에서 발견된 연지는 고려시대의 특징적인 정원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부어 동남리 사지에서 발견된 특이한 형태다.

정재훈 문화재위원은 “회랑안에 연지를 둔 것은 독특한 형태로 탑의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며 연지가 갖는 특이한 상징성은 연구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네모반듯한 모양의 연지가 쌍을 이루어 발견된 것은 백제에서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인각사지 중심축(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동서축과 관련한 중요한 유적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동현 박사는 “인각사지유적발굴조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시간을 두고 정확한 발굴과 조사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명대 교수는 “극락전에서 심초석이 발견됨에 따라 극락전 부지가 예전의 금당지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뒤엎어놓았다며 금당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발견된 초석과 심초석으로 목탑복원하는 것보다 목탑의 정확한 시대를 확인하는 것도 금당지를 찾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동현 박사는 “인각사지유적발굴조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시간을 두고 정확한 발굴과 조사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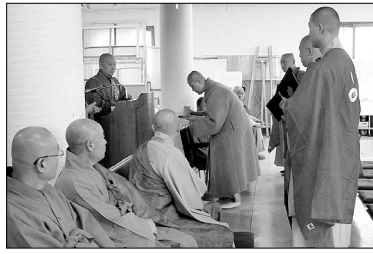
문명대 교수는 “극락전에서 심초석이 발견됨에 따라 극락전 부지가 예전의 금당지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뒤엎어놓았다며 금당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발견된 초석과 심초석으로 목탑복원하는 것보다 목탑의 정확한 시대를 확인하는 것도 금당지를 찾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동현 박사는 “인각사지유적발굴조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시간을 두고 정확한 발굴과 조사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명대 교수는 “극락전에서 심초석이 발견됨에 따라 극락전 부지가 예전의 금당지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뒤엎어놓았다며 금당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교수는 “발견된 초석과 심초석으로 목탑복원하는 것보다 목탑의 정확한 시대를 확인하는 것도 금당지를 찾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글·사진(군위)=배지선 기자

대구 범음범패연구회 졸업식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중무원(원장 법운) 부설 범음범패연구회는 3월 9일 태고종 대구경북중무원 법당에서 제3회 졸업생 6명을 배출하고, 신입생 20여명을 받아들였다. 또, 1학년 2학년과정을 수료한 수료생 1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사진).

배지선 기자

칠곡 송림사 복장불사 점안식

경북 칠곡 송림사주지 성덕이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명부전 복장불사 점안식을 봉행한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송림사 명부전에는 1600년대 봉안된 것으로 알려진 삼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상이 있으며 모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정면5칸 측면3칸으로 된 출처마에 맞배지붕인 명부전에는 오역의 대좌를 법해 교화를 바랄 수 없는 무리를 삼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대웅전의 기단과 같은 높이로 쌓은 축대에 건물을 지어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다. (054)976-8116

대불어 대구지회장에 선용 스님

대구 달성군 현풍 포교당 주지 선용스님(사진)이 최근 대한 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 대구지회장 임명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 따라서 그동안 구심점이 없이 침체기를 맞았던 대불어대구지회가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용 스님은 청소년교화연합회와 서울 지역 어린이 지도자들의 모임인 '길놀이'에서 활동을 했고, 좋은벗청소년교리와 인연을 맺으며 <뽕뽕공공>, <개구쟁이 스님> <함장> 등 어린이 찬불가 노랫말 20여 편을 짓는 등 어린이 포교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배지선 기자

동화사 주지추대위 발족

동화사주지추대위원회가 3월 3일 대구 삼덕동 진석다와 발당에서 발족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원이며 추대위 공동위원장 혜승 스님은 “동화사 주지 선출에 대해 과열 혼탁되는 부정적인 요소들로 승가 화합을 깨치고 불교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공동의식에서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동화사주지후보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4월 7일 오후1시 열린다.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 옥불보전 낙성법회 봉행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2천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옥불보전 낙성 및 준제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3월 7일과 8일에 걸쳐 봉행했다.

7일 열린 점안법회는 우학 스님 인사, 공로패 전달, 혜국 스님(석종사 금보선원장)의 특별법문으로 이어졌고, 8일 낙성법회는 테이프 컷팅식, 육법공양, 삼귀의, 우학 스님 인사, 공덕패 수여,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영남불교대학 옥불보전은 연건평 2,700여평 지하2층 지상 7층 규모로 2004년 9월 1일에 착공했고, 지상1~3층에는 약 500여명을 수용하는 참종은유치원이, 6~7층은 스님들의 수행공간으로 선방, 강원, 율원을 겸하는 학실이 들어섰다. 그 외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삼보갤러리가 6층에 위치하며 옥상에는 연밭이 있는 생태공원과 우리 농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 (053)474-8228

배지선 기자

공군 K-2 기지내 초대형법당 증축

공군 최대 기지인 대구 동구 K-2부대의 성무일승사(법사 화엄)가 공군 장기계획에 의해 연면적 350여평(법당 130평, 요사 220여평) 지상 2층 규모로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초대형 법당으로 증축된다.

성무일승사는 공군 포교의 전략요충지로 가장 많은 공군 장병이 근무하고 있다. 불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많은 부대 법당 중 하나다. 법회 참가자가 300여명이 넘지만 1976년 지어진 법당이 100여명 남짓 협소하고 비가 새는 등 노후되어 재건축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공사는 20여 억 원의 예산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3월 9일 K-2 기지내 불사 장소에서 거행된 법당 기공식에는 제2석굴암 주지 홍관 스님을 비롯해 군수사령관, 남부사령관, 공군본부 선전 법사 등 군 법사 및 군장병 가족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경북 청년불자들은 살아있다”

대한불교청년회 경북지구

3월 5일 경북지역 청년 불자 80여명이 포항 보경사에 모였다. (사)대한불교청년회 경북지구 13대 신임 회장단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지부 지회 임원간 상견례 자리를 마련한 것.

대불청 경북지구 12대 류춘일 지구장과 13대 김성식 지구장을 비롯해 구미, 포항, 영주, 상주 예천 칠곡, 풍기 지회 임원들이 모두 모였다. 중앙회 김익

모처럼 함께한 대불청 경북지구 청년회의 만남은 보경사에서 포항 바닷가로 넘어가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어느덧 연니 동생이 되어버린 청년불자들은 이렇게 자주 만나야 한다는데 마음이 통했다. 비록 모든 청년불자들이 자주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김성식 지구장만은 월 1회 각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버스 한대를 대절해 함께 온 예천, 영주, 상주



청년 불자들은 합동법회를 개최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처음엔 조용하던 신임회장에 단에 바라는 요구의 소리도 커져갔다. 함께하는 자

회장단 취임식 대신 사찰서 대화의 장 마련

합동법회 전국대회 개최 등 추진 목소리도

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여법한 회장단 이 취임식 대신 조촐한 상견례를 갖게 됐지만 김성식 신임지구장은 어느 때보다 경북지구 청년불자들의 힘이 하나로 모이고 있음을 느낀다. 특히 예천 영주 상주 경북 북부 청년불자들의 결집이 눈에 띈다.

점심을 겸한 간단한 상견례시간, 모든 지회의 임원들과 청년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성식 신임지구장이 김익석 중앙회장에게서 인준서와 등록증을 받았다. 또, 김진기 전임대원의 장에게 공로패가 류춘일 전임지구장에게는 재직기념패가 수여됐다. 경북지역 청년불자들은 박수로 지난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신임 임원들에게는 함께 싱그러운 대불청 경북지구를 만들어가자는 눈빛을 쏘았다.

리를 자주 만들지 못하더라도 공동의 회원명부를 만들어야 하는 이야기며, 2007년쯤 전국대회를 경북지구가 개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등의 이야기들이 열기를 뽐으며 쏟아져 나왔다.

“도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밤이었다”는 김회장이 경북지구 청년불자들의 힘을 받아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해 온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진정 공부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입장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2년간 불행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는 만큼 청년불자들의 마음도 깊어지고, 청년불자들의 견제 힘을 알리는 함성도 드물었다.

“대불청 경북지구는 살아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랜덤하우스중앙 필치면 보이는 새로운 세상 www.randombooks.co.kr

귀원문의 02-3705-0108 | 지문 서비스에 있습니다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이 그려낸 청화 큰스님 일대기!

장좌불와, 하루 한 기, 토굴 수행, 칼날처럼 치열했던 청화스님의 40년 구도의 길

청화 큰스님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다가 가신 도인(道人)이다. 자리에 놓지 않는 정좌 불와의 수행을 평생 지켜왔던 청화 큰스님. 그는 도교의 실체를 증명한 우리 시대의 선승이자 스승이다.

청화 큰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컬러 사진과 소품으로 재구성한 뛰어난 소설, 베스트셀러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씨가 '전생적 수행승'이 아닌 '인간적 구도자'로서의 스님을 되살렸다. - **중앙일보**

장좌불와, 토굴 수행을 하며 당대의 선승으로 꼽힌 청화스님(1924~2003)의 일대기 신동으로 주목받던 청화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출가 이후의 길날 구도의 길을 생생하게 전했다. - **경향신문**

청화 큰스님의 족적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기도 생명을 할 수 있다는 실존적인 기대가 허물어지지 않음을 증명한다. - **서울경제신문**

남지심 장편소설 **청화 큰스님** 1·2

남지심 지음 | 전2권 | 신국문 | 각권 8,500원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샘물 같은 이야기
매 순간 행복하게, 매 순간 후회없이 사는 법

마음 밖으로 걸어가라
정택 스님 지음 | 225쪽 | 값 9,800원

인문과 불교계가 격찬한 최고의 불교 성지 순례기!
진리의 길을 따라 퍼져나간 2,500년 불교 역사의 현장

다르마로드 1·2
조형철 지음 | 각권 400페이지 내외 | 각권 값 32,000원

고즈넉한 정취가 있는 산사로의 여행
전국 21개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완벽정리!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
유철성 지음 | 265쪽 | 값 12,000원